

악몽의 9회... 5강 '물거품'



KIA, 9회만 되면 실투·실책에 승리 기회 번번이 놓쳐 양현종 2게임 연속 무실점 호투에도 불행난조에 무승 외국인 투수 부진·벤치 전략 부재... 멀어진 가을야구

KIA 타이거즈의 5강이 '통곡의 9회'에 막혔다. KIA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원정 6연전길에 올랐다. 5위 NC와 7경기 차였지만 에이스 양현종의 기세가 등등하고, 터너도 앞선 두산전 등판을 통해 반전을 이룬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터너에게 발동이 찍히면서 시작부터 꼬였다. 터너가 LG·잠실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20일 2.1이닝 8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이어 '9회'가 KIA를 울렸다. 유독 KIA의 마지막

이닝에 관심이 쏠린 8월 중순이었다. KIA는 지난 15일 SK와의 홈경기에서 4-7로 뒤진 9회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2사에서 나온 3연속 안타로 6-7까지 추격을 했다. 하지만 승리 대신 잔루 3개만 남았다. 16일 1-0 승리에는 상대의 끝내기 실책이 있었다. 이 경기의 선발 양현종은 7이닝 무실점 호투에도 1점도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는 행기치 못했다. 17일 KT전에서는 9회 무사 1루 기회를 날리며

10회 연장승부 끝에 3-4로 졌고, 18일에도 9회 입맛만 다셨다. 1-2로 뒤진 9회말, 안치홍의 선두타자 안타가 나왔지만 이창진의 삼진 이후 대주자 오정환의 도루 실패로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경기는 1-2패였다. 악몽의 9회는 원정길에서도 반복됐다. 이번에도 양현종과 오정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2일 키움전에서 양현종이 8회를 89구 무실점으로 끊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무사사구 완봉승까지 노려볼 수 있었지만 양현종은 5-0의 넉넉한 상황에서 등판을 끝냈다. 하지만 양현종에 이어 등판한 좌완 하준영을 시작으로 KIA의 스텝이 꼬였다. 하준영이 안타와 볼넷으로 흔들렸고 1사 1·2루에서 박준표가 투입됐다. 박병호를 파울플라이로 처리하면서 큰 고비를

넘는 것 같았지만 샌즈와 박동원의 연속 안타가 나왔다. 5-2로 좁혀진 2사 1·2루에서 마무리 문경찬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대타 송성문의 동점 스리런으로 양현종의 승리가 날아갔다. 경기는 연장 12회 승부 끝 5-5 무승부. 충격의 패배 이후 24일 SK전에서는 월렌드가 6이닝 4실점으로 0-6, 영봉패 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다. 25일에도 KIA는 9회 악몽의 모습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1-4로 뒤진 9회말 KIA가 3연속 안타로 1점을 만들며 SK를 압박했다. 유민상이 1사 1·3루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마운드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다. SK 마무리 하재훈이 투구 도중 공을 손에

권 채로 미끄러졌고, 보크가 선언됐다. 상대의 실수로 3-4까지 추격을 했고, 안치홍의 타구가 유격수 글러브를 맞고 좌전 안타가 되면서 행운의 여신은 KIA 편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안치홍의 안타 때 2루에 있던 오정환이 홈에 들어오다가 아웃이 됐다. 타구 판단을 하느라 스타트가 늦었고, 3루를 돌면서 미끄러지기도 하는 등 경험 부족의 대주자와 의욕 넘친 주루코치의 판단 미스가 겹치면서 연출된 아쉬운 장면이었다. 경기는 1점 차 KIA의 패배로 끝났다. 구단은 두 외국인 투수의 부진을 방지하면서 기싸움에 시동을 걸어주지 못했고, 벤치는 구수를 제대로 꿰지 못하면서 뒷심 싸움에서 밀렸다. '악몽의 9회'와 함께 KIA의 5강 꿈은 물거품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최다 승점' 새 역사 쓴다

'K리그2 25R' 오늘 대전과 홈경기 상대전적 7승5무9패 열세 극복 관전

광주FC가 대전시티즌을 상대로 최다승점 경신에 나선다. 광주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과 2019 K리그2 2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14승 9무 1패(승점 51)로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는 이 경기를 통해서 팀 최다 승점 경신을 노린다.

앞서 광주는 K리그2로 강등된 2013시즌, 16승 5무 14패로 승점 53을 따내면서 팀 최다 승점과 최다승 기록을 작성했다.

올 시즌 19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성공하며 팀은 물론 K리그2 최다 무패 기록을 갈아치운 광주는 이번에는 팀 역대 최다 승점 경신을 노린다.

광주는 앞선 부산아이파크와의 일전에서 귀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격으로 가는 길의 큰 고비를 넘겼다.

광주는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던 후반 42분 이은범의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선두다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산은 올 시즌 광주와 치른 3경기 모두 선제골을 넣고 무승부에 그치면서 추격 의지가 꺾였다.

광주는 올 시즌 홈 11경기 무패행진(7승4무)으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광주는 최근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벨리페의 발을 적극 활용해 시즌을 풀어온 광주는 상대 수비가 압박할 경우에는 세트피스로 응수했다.

21라운드 수원전은 필드 슈팅, 22라운드 전남전은 세트피스, 23라운드 부천전은 페널티 헤더, 24라운드 부산전은 이은범의 프리킥에 의해 골이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골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만큼 상대에게는 까다로운 팀이 됐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변수는 있다. 이한도와 여봉훈이 경고누적 징계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캡틴' 김태운, 김진환, 홍준호 등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휴식을 취한 박정수, 여름 등도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대전은 올 시즌 4승 4무 16패(승점 16)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광주FC가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시티즌과의 K리그2 25라운드 경기에서 팀 역대 최다 승점에 도전한다. 사진은 앞선 6라운드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벨리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헤더를 시도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창과 방패 모두 부실하다. 대전은 24경기에서 17득점을 넣는데 그치면서 최소득점 1위 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38실점을 하면서 최다실점은 2위다.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대전이지만 광주에는 까다

로운 상대다. 광주는 대전과의 역대 전적에서 7승 5무 9패로 열세다. 최근 홈경기 맞대결에서도 1무 2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도 대전의 거친 공세에 막

혀 승격 도전을 멈춰야 했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앞세운 광주가 '천적' 대전에 승리를 챙기면서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시즌 첫 연승

K리그2 25R 부천 FC에 3-0 승 다득점서 밀려 순위는 8위 그대로

전남드래곤즈가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다. 8위 전남은 지난 24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K리그2 25라운드 7위 부천FC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앞선 19일 아산 무궁화를 2-0으로 꺾으면서 5경기만이자, 전경준 감독대행 체제 이후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던 전남은 시즌 첫 연승까지 기록했다.

아산전에서 추가골을 넣으면서 승리에 쐬기를 박았던 정재희가 연승의 시작점이 됐다.

0-0으로 전반전을 마감한 전남이 후반 6분 첫골을 가동했다.

이슬찬이 전남 진영에서 길게 공을 올려주자 정재희가 공을 받아 왼쪽으로 침투를 했다.

그대로 공을 몰고 페널티 지역에 진입한 정재희는 상대 수비수가 제대로 공을 견어내지 못한 틈을 노려 오른쪽으로 공을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었다. 시즌 3호골.

골키퍼 박준혁이 침착하게 부천의 공세를 막아내자 정재희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후반 43분 전개된 역습 상황에서 정재희가 전남 진영에서부터 폭풍 드리블에 나섰다.

거침없이 부천 골대로 질주한 정재희는 왼쪽에서 쇄도하던 바이오에게 살짝 공을 넘겨줬고, 바이오가 논스톱 슈팅으로 부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 주인공 정재희의 시즌 5번째 도움이 기록된 순간이었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윤용호가 팀의 연승을 자축하는 골을 터뜨렸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질주를 시작한 윤용호는 그대로 부천 페널티 지역까지 진입한 뒤 왼발로 슈팅을 날렸다.

공은 골키퍼 최철원을 비켜 부천의 골대를 갈랐다.

이와 함께 3-0 승리를 확정짓는 전남은 시즌 첫 연승으로 승점 3점을 보냈다.

하지만 7위 탈환은 이루지 못했다. 전남이 8승 5무 12패(승점 29·득점 25)로 부천(7승 8무 10패·승점 29·득점 31)과 승점은 같아졌지만 다득점에서 밀리며 8위 자리를 유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의조

황의조·권창훈 '슈퍼 코리안 위크' 합작

황, 프랑스 리그 3경기만에... 권, 분데스리가 데뷔전서 각각 골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와 권창훈이 유럽리그서 나란히 데뷔골을 신고했다. 프랑스 리그와 보르도의 황의조(27)는 3경기만에,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권창훈(25)은 데뷔전에서 리그 1호골을 썼다. 황의조는 25일(한국시간) 스타트 가스통-제라르에서 열린 2019-2020 리그앙 3라운드 디종 원정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쓰리톱의 중앙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특유의 활동량을 앞세워 골문을 노리다 결정적 찬스를 골로 연결했다.

팀 동료 사무엘 칼루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는 페널티 지역 바깥 왼쪽에서 수비수를 따돌린 뒤 전매 특이인 오른발 감아차기 슈트로 디종의 골망을 흔들었다. 리드를 잡은 보르도는 후반 2분 코너킥 상황에서 로리스 베니토가 추가골을 넣었다. 황의조는 71분간 활약한 뒤 후반 26분 교체됐다. 리그 개막 이후 1무 1패로 승리가 없던 보르도는 황의조의 활약을 앞세워 리그 첫승과 함께 시즌 첫 클린시트(무실점)를 기록했다. 독일에서는 권창훈의 활약이 이어졌다. 권창훈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벤틀러 아

레나에서 열린 2019-2020 분데스리가 2라운드 파더보른 원정경기에서 팀이 2-1로 리드한 후반 40분 브랜던 보렐로와 교체 투입됐다. 권창훈이 자신의 실력을 분데스리가 팬들에게 증명하는데 5분이면 충분했다. 후반 45분 팀 동료 루카스 뮐러가 측면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승리한 뒤 명볼 크로스를 올렸다. 권창훈 이를 놓치지 않고 왼발로 차넣었다. 권창훈은 이 골로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올 여름 팀내에서 역대 3번째 비싼 450만 유로(59억 원)의 이적료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한 정우영(19)은 발목 부상으로 결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권창훈